



대형 IT기업의 보험사업 진출과 영향

김세중 연구위원

미국 IT기업 아마존은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 버크셔해서웨이와 함께 헬스케어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고, 인도 온라인 보험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중국의 대형 IT회사 텐센트와 알리바바,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온라인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등 최근 대형 IT기업의 보험관련 사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의 출현으로 보험산업과 IT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 보험회사들도 아직까지 인슈어테크 기업 투자나 협업에 나서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전략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1월 31일 미국 IT기업 아마존(Amazon)은 JP모건체이스, 버크셔해서웨이와 함께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함

- 이들 세 기업은 미국의 높은 헬스케어 비용이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공급한 후, 차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임
-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들은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가 IT기술에 기반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건강보험회사들은 IT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대형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진출 시도를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임
- 미국 대형 건강보험회사인 씨그나(Cigna)는 아마존의 발표 이후 보다 저렴하고 개인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 관련 벤처 인수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¹⁾

1) Forbes(2018, 2, 5), "Health Insurers Tout Technology Investments As Amazon-Buffett Firm Looms"

■ 아마존은 최근 인도 온라인 보험회사 악코(Acko) 손해보험을 인수하여 인도 온라인 보험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본격적인 보험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²⁾

-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의 악코 손해보험 인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거래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악코 손해보험은 2018년 1월부터 아마존에 온라인 보험상품을 공급하기로 함
 - 악코 손해보험은 2017년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인도의 보험회사이며,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회사임
- 아마존은 이미 2016년 영국에 아마존 프로텍트를 설립하고 아마존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 대상으로 보증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아마존은 아직까지 자사 구매 상품에 대한 보증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으나, 악코 손해보험 인수를 통해 인도에서 시범적으로 온라인 보험상품을 판매한 후 점차 판매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의 대형 IT회사 텐센트(Tencent)와 알리바바(Alibaba)도 온라인 보험회사 지분을 인수하였고 일본의 IT기업 소프트뱅크(SoftBank) 또한 온라인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등 최근 대형 IT기업의 보험사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 2013년 중국 IT기업 텐센트와 알리바바, 평안 보험회사 등의 지분참여로 설립된 중국 최초의 온라인 전용 손해보험회사 종안은 온라인 구매 제품에 대한 반품비용 보험, 온라인 구매 항공권의 이륙 지연 손해보험 등과 함께 건강보험도 판매함³⁾
- 일본 IT기업 소프트뱅크 또한 2017년 12월 임대 및 임차인을 위한 온라인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레모네이드(Lemonade)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으며, 레모네이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험가입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함⁴⁾

■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회사들의 온라인 보험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존 보험회사와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회사들이 충분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기반을 갖

²⁾ Business Insider(2018. 1. 5), "Amazon pushes further into insurance with its latest investment"

³⁾ Financial Times(2017. 9. 25), "ZhongAn launches insurtech concept to world"

⁴⁾ Techcrunch(2017. 12. 19), "SoftBank leads a \$120 million round for insurance startup Lemonade"

춘 인슈어테크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보험산업의 경쟁은 심화될 것임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향후 인슈어테크 산업에서 기존의 보험회사가 주도권을 잡는 경우, 뚜렷한 주체없이 분화되는 경우, 대형 IT기업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음⁵⁾
- 대형 IT기업의 경우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데, 인슈어테크 산업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경우 기존 보험회사가 경쟁 열위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보험회사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의 출현으로 보험산업과 IT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IT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어 보험산업과 IT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엑센츄어(Accenture)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은행에 비해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들과의 협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16년 인슈어테크 투자 중 보험회사의 투자는 17%에 불과하고 83%가 타 산업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분석됨⁶⁾
 - 엑센츄어는 역사가 오래된 보험회사들이 설립된지 얼마 안되는 벤처기업과 협업을 하기에는 문화적인 차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차이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 아직까지 보험회사들은 창의적인 인슈어테크 기업의 등장과 대형 IT기업과의 협업을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거대한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 판매채널을 갖춘 대형 IT기업이 경쟁자로 부상할 경우를 대비해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들도 아직까지 인슈어테크 기업 투자나 협업에 나서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전략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14년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가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로 확대되면서 보험회사는 벤처기업인 인슈어테크 투자가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 투자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대형 IT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인슈어테크 투자를 통해 신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함 **kiri**

⁵⁾ IAIS(2017, 2, 21), "FinTech Developments in the Insurance Industry"

⁶⁾ Accenture(2017), "The rise of Insurtech"